

자기를 바로 봅시다

금주의 법구

오래를 잘 지키어 법국이 높게 되고
순수한 법을 지키어 천인의 마음을
지키는 우구에게나 귀중한 보배이며
많은 공덕은 도덕이 되고 불교가 못되지 않는다
-법아합경-

현대불교

佛事 전년 30년
불교미술전시관

신정미술사 박물관
개업 기념 특별 전시

02)733-4800 http://www.buddha.or.kr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경기도 안산에 사는 배중호 불자(44). 그의 아내는 99년 9월 만성신부전증 진단을 받아 지금까지 혈액 투석을 하고 있다. 아내의 투병 생활을 지켜보던 배씨는 생명 나눔의 소중함을 깨달고 지난 6월 8일 생명나눔실천회 홈페이지를 통해 장기기증을 신청했다.

배씨처럼 생명

인터넷시대 막차라도 타자
사이버 불국토 만들자

나눔실천회 홈페이지를 통해 장기기증을 하는 사람은 한달 평균 50여명으로 그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공간이 시민참여의 폭을 넓혀주는 새로운 시민운동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 시민단체들이 '사이버 불교시민운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생명나눔실천회(www.lisa.or.kr), 좋은 벗들(www.jungto.org/gf), 불교환경교육원(www.jungto.org/bae), 불교바로세우기 재가연대(www.dharmaret.net/jaega) 등 단체들은 인터넷을 통해 각 단체의 활동을 소개하고 후원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또한 회원 또는 방문객들과의 생방송의 사소통이 가능한 게시판을 활용,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여론을 조성하는 등 사이버 불교 시민운동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홈페이지의 자료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민들과 불자들이 사이버 시민운동을 외면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 지속적인 관리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각 시민단체별로 홈페이지가 전문화 특수화되어야 하고 시민단체들간의 연대 강화, 정보공유 등도 해결되어야 할 숙제다.

사이버 공간은 시공간을 초월한 가장 불교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현실세계의 한정된 시민운동이 사이버 세계라는 열린 공간을 통해 시민운동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종단과 스님 그리고 모든 사부대중들의 인식변화, 즉 정보화 마인드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김두식 기자(dooib@buddhania.com)

대한불교 예술원

전화 : 02)930-1681 / 011)336-5200

- 법당내부(탁자·담장) 전문시공 업체
- 목형화·영단·대웅전·단청·명화 불사

“동국대 도서관 지하서고 방치 33년 티베트 대장경 연구하자”

1967년 달라이 라마 기증... “논리·반야·중관·밀교학 寶庫”

분류목록 조차 없어

동국대 도서관에 1967년 달라이 라마가 기증한 라사관을 비롯해 4가지 관본의 티베트대장경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의외로 드물다. 더욱이 “서장대장경을 연구해 동국대가 중앙 제일의 불교센터가 되길 바란다”는 달라이 라마의 뜻이 담긴 라사관의 경우, 30여 년이 지난 지금 분류목록조차 정리되지 않은 채 지하서고에 보관되고 있어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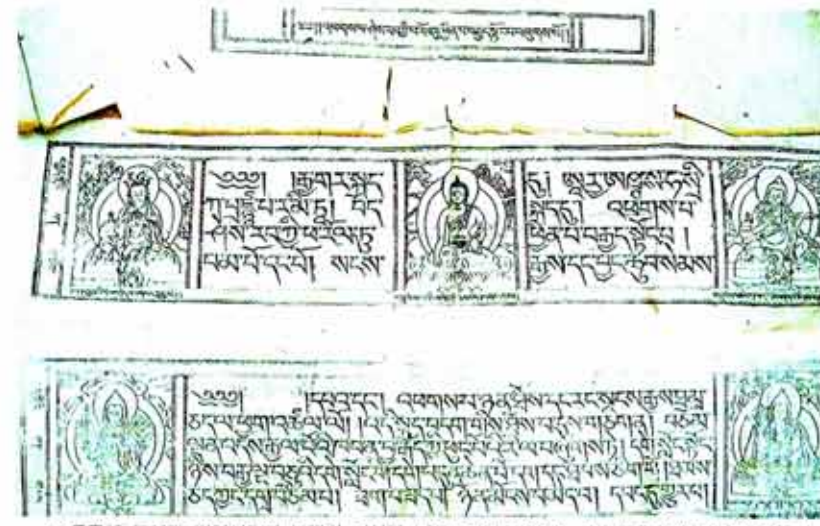
티베트불교를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은 “티베트대장경은 ‘유물’로서의 가치보다는 학술적인 가치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한다”며 “동국대 소장 티베트대장경을 관련 학계에서 적극 활용해, 티베트불교를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 동안 불교학계는 티베트불교와 관련된 세미나를 한 차례도 개최한 적이 없을 정도로 무관심으로 일관해 왔고, 관련 논문도 수천에 불과할 정도로 연구 성과와 학자층이 극히 얇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라사관 티베트대장경을 소장하고 있는 일본 동경대학은 1965년에 티베트대장경 목록을 작성하고, 미국 세계종교연구기구(LASWR)는 마이크로 필름을 제작해 불교학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티베트불교에 대한 국내 학계 연구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양승규(동국대 강사) 박사는 “티베트대장경은 한역대장경에 소개되지 않은 다수의 ‘인도후기불교’ 경전이 수록되어 있다”며 티베트대장경의 학술적 가치를 지적했다. 특히 한역대장경에 없는 경전들은 주로 논리·반야·중관학과 밀교 등을 다루고 있으며, 이들 경전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현대 인문·철학계의 ‘화두’라는 개념 박사의 설명이다.

이태순(위덕대) 교수는 “티



동국대 도서관 지하서고에 보관된 라사관 티베트대장경(일부). 라사관은 경전부만을 수록하고 있지만, 티베트인들이 세밀한 문법적 검증을 해 가장 완벽한 판본으로 알려져 있다.

베트대장경 연구는 세계 각국에서 강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티베트불교를 이해하는 핵심일 뿐만 아니라, 인도후기불교 경전에 녹아있는 불설(佛說)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30여 년 전 “이 귀중한 자료를 단순히 보물시하고 봉인만 해 놓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토대로 불교의 정확한 이해를 위한 구도자적 의욕을 왕성히 해야 할 것”이라는 구 이기영 박사의 말이 재차 강조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이 같은 상황이 재연

되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 학계에서 동국대에 소장된 라사관 등 4가지 티베트대장경에 관심을 갖고, 한역대장경에서 읽어 버린 인도의 후기대승불교의 고리를 다시 찾아야 할 것이다.

정성준박사(동국대 불교문화연구소)는 “현재 젊은 학자들 사이에서 티베트불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것 같다”며 “관련 학계에서 이들이 활발하게 연구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준다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gobaou@buddhania.com)

정부의 동아시아·일본대표부 대사인 자를 린포체와 구체적인 방안 일정을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진 한나라당 김영웅 정의화 김영춘 정인봉, 민주당 이호웅 송영길 임종석 의원 등 여야 의원 8명은 20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의 방한을 허용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정성준·김재경 기자(swjung@buddhania.com)

“달라이 라마 방한 허용”

이정빈 외교장관 밝혀
방한준비위 “평화축제로”

이정빈 외교총장부장은 21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정책심의회에서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릴 아시아유류정상회의를 마친 뒤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의 방

한을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달라이 라마 방한준비위원회(상임대표 방정)는 “정부의 입장변화는 김대통령이 교황의 북한방문을 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비되는 종교적 균형감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오는 27~29일 방한하는 티베트명

정부는 동아시아·일본대표부 대사인 자를 린포체와 구체적인 방안 일정을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진 한나라당 김영웅 정의화 김영춘 정인봉, 민주당 이호웅 송영길 임종석 의원 등 여야 의원 8명은 20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의 방한을 허용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정성준·김재경 기자(swjung@buddhania.com)

정대성, 조봉래의 지시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성님은 19일 총무원회의를 열고 달라이 라마의 11월 방한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달라이 라마가 방한하면 영접 등을 조계종에서 할때 이에 따른 실무적인 준비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총무부는 달라이 라마 방한준비위원회와 협의해 이의, 정대성님과 달라이 라마의 면담 일정 등의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정성준 기자

제3회 '부다피아 어린이캠프'

자연과 함께 부처님과 함께

현대불교신문은 불교 앞날의 주인공이 될 새싹들을 키우기 위해 제 3회 부다피아 어린이 여름캠프를 엮는다. 2교구 본사 용주사와 에버랜드의 자연 속에서 공동체 생활을 익히면서 건강하고 맑은 심신을 길러주게 될 부다피아 캠프는 어린이들에게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름방학을 이용해 불교문화를 체험하고, 에버랜드 통나무집에서 생활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피부로 느끼는 등 멋지고 신나는 부다피아 캠프에 많은 어린이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7월 20~22일
에버랜드·용주사

현대불교신문은 불교 앞날의 주인공이 될 새싹들을 키우기 위해 제 3회 부다피아 어린이 여름캠프를 엮는다. 2교구 본사 용주사와 에버랜드의 자연 속에서 공동체 생활을 익히면서 건강하고 맑은 심신을 길러주게 될 부다피아 캠프는 어린이들에게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름방학을 이용해 불교문화를 체험하고, 에버랜드 통나무집에서 생활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피부로 느끼는 등 멋지고 신나는 부다피아 캠프에 많은 어린이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일 정 : 2000년 7월20일(목)~22일(토)
2박3일(사찰 1박, 에버랜드 통나무집 1박)

○장 소 : 용주사, 목야박물관, 에버랜드

○대 상 : 초등학교 1~6학년(선착순 250명)

○참 가 비 : 6만원

○문의 : 전화 080-717-0114, 011-317-2555

○은행계좌 : 농협 100030-52-039999 (예금주 : 이성훈)

· 주최 : 현대불교신문사 · 주관 : 선재이벤트
· 후원 : 조계종 포교원·진각종 통리원·조계사·한마음선인·공은사·삼보사·보덕학회·(사)한국불교교화복지선교회

의료폐업 철취 촉구

조계종 “환자 외면 말라”

조계종총무원(원장 정대)은 21일 의료계의 집단 폐업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환자들을 외면한 집단 폐업은 아무런 명분없는 집단이기주의”라며 집단 폐업의 철취를 촉구했다.

조계종은 논평에서 “의료계가 의·약분업의 연기를 주장하며 폐업에 나서고 있지만 시

“영산대재 남북 공동봉행”

태고종, 조봉래에 제안

태고종 총무원(원장 인국)은 23일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 박태화 위원장 앞으로 서신을 보내 “조국의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영산대재를 가까운 시일내에 남북의 불교도들이 공동으로 묘향산 보현사나 평양 광법사에서 봉행하자”고 제안했다.

태고종은 “남북정상회담과 6.15 남북공동선언의 실현에 일

제안을 받습니다

중립학교(동국대학교, 중앙승가대학교)의 발전 방향과 종단의 효율적 관리 방안에 대하여
중도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한국사회는 새로운 환경 변화를 맞이하여 중립학교에도 변화와 개혁이 요구되고 있으며, 교육 개혁의 큰 물결을 헤쳐 나갈 결단과 지혜, 그리고 원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에 안주하거나 머뭇거리면 급변하는 사회 흐름에 뒤처지고 말 것입니다.

또한 불교인재 양성과 불법홍포의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종단의 노력도 더욱 요청됩니다.

이에 종단의 중립학교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중립학교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조응하고, 건학이념을 구현하여 불교이념을 교육으로 올바르게 형성화 할 수 있도록 중립학교 관리 업무를 새로운 차원에서 모색하여 나아가고자 다음과 같이 중도 여러분들의 다양한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중도 여러분들의 고견 하나하나가 중립학교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며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 다음 —

1차 제안대상 : 1) 동국대학교
2) 중앙승가대학교

* 본종의 중립학교인 능인학원, 원효학원, 영축학원, 금정학원, 광동학원, 청담학원, 보문학원, 정광학원 산하 소속 학교 등에 대하여는 후후 제2차 제안을 받고자 합니다.

*제안해 주실 내용 : 1) 중립학교(동국대학교, 중앙승가대학교)의 건학 이념 구현을 위한 과제와 방안
2) 종단의 효율적인 중립학교 관리 방안
3) 타 종교 중립학교 모범 관리 사례 4) 기타 중립학교 발전과 개선할 점에 대한 사항

*방 법 : 우편 및 전송, 홈페이지 이용

▶우 편 :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45 대한불교조계종 중립학교관리위원회
▶전 송 : 02)733-8286 ▶홈페이지 : http://www.kbco.or.kr

*문 의 : 중앙총회 사무처 02)735-5860

*기 간 : 불기 2544(2000)년 12월 31일까지

*기 타 : 1) 중도 여러분들의 고견을 참고하여 ‘중립학교 발전과 효율적 관리 방안’을 수립할 것입니다.
2) 보내주시고 고견 가운데 우수 의견에 대하여는 향후 포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중립학교관리위원회에서는 중립학교 발전 방안을 연구하고 사무를 담당할 상근직 전문위원(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불기 2544년 6월 22일

대한불교조계종 중립학교관리위원회 위원장 학 담